

지하철내 유독가스 살포시 대피 훈련계획

운행중인 지하철에서 유독물질이 살포될 경우 신속한 대피로 인명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함.

※ 지하철사고는 격리된 공간(연기·가스 확산성↑), 제한적 대피로 및 폐쇄공간에 의한 심리적 혼란 등에 따라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음

□ 훈련개요

- 일시/장소 : '15. 3. 7.(토) 02:00 ~ 04:00/ 경복궁역~독립문역(3호선)
- 주관기관 : 국민안전처, 서울메트로
- 참여기관 : 서울지방경찰청, 서울특별시, 서대문구, 서대문소방소
- 훈련내용 : 지하철내 유독가스 테러에 따른 재난대응 훈련
 - ※ 국민안전처 직원 200명 훈련참여(승객, 부상자 등 역할부여)

□ 추진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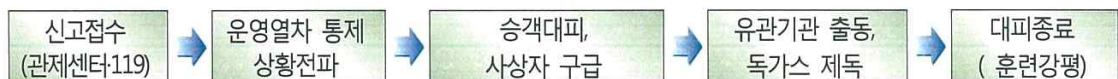
< 상황설정 >

- '15.3.7(토) 21:00경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을 출발 독립문역으로 운행 중 지하철내 신원미상의 승객이 정체불명의 유독가스 살포
 - * 중증 호흡곤란 30여명, 다수 승객 구토증상 호소

【훈련 중점사항】

- 운행중 열차내에서 유독물질 살포시 안전한 승객대피 매뉴얼 점검
- 승무원·역무원 초동대응, 관제센터의 상황전파 등 역할 정립
- 신속한 사상자 구급 및 제독 등 유관기관 협업

【훈련 과정】



□ 향후계획

- 도출된 문제점 개선안 마련, 매뉴얼에 반영
- 사고대응체계 완성도 제고 및 안전한국훈련 등 국민참여훈련에 활용
 - ※ 홍보계획 : 훈련목적 및 방법 등 보도자료 배포 예정 < 3.5(목) 08:00 >